

2010 제주 잠녀 재조명사업 시동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주)세계섬학회, 26~8월 20일 제주대국제교류회관·가파도 등서

등록 : 2010년 07월 23일 (금) 09:48:23
최종수정 : 2010년 07월 23일 (금) 09:48:23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와 (주)세계섬학회의 2010 제주잠녀 재조명사업이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섬'에서 펼쳐진다.

21세기 제주에서의 환경과 평화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이번 재조명사업은 해양문화로 제주 잠녀와 잠녀문화의 보존과 전승 가치를 재확인하고 평화섬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으로 꾸려진다. 지난 4월 무도에서의 평화섬포럼에 이어 이번 재조명사업은 가파도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31일 가파도 할망당에서의 평화섬 성화 창안 영원 마을제와 평화섬 불턱 제막식과 불턱 회의 등 잠녀를 중심으로 제주 해양성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원어민교사인 세린 히바드씨(호주)와 스티브 오버하우저씨(미국)가 제주연안 250km를 3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수영과 카약으로 일주하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세린씨는 한수풀해녀학교를 수료하는 등 잠녀의 매력을 몸으로 익혔고 제주 연안의 아름다움과 해양성 문화의 가치 보존 의지가 강하다. 이번 이벤트는 도민과 외국인들의 모금을 통해 경비의 절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평화섬문화올림픽의 공식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8월 1일에는 서귀포 새연교에서 '제주해양(잠녀)요리문화-몸국과 소라물회의 잠녀 식탁'과 '제주잠녀춤-세계환경수도의 꿈', '제주해양(잠녀)음악제-새섬 금빛 파도를 넘고' 등 2011년 세계해녀문화축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0일과 31일 각각 제주대국제교류회관과 가파도에서 열리는 제10차 평화섬 불턱포럼-21세기 제주에서의 세계환경문화와 평화문화의 만남 컨퍼런스와 불턱회의는 제주 해양성문화의 국제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불턱포럼에서는 특히 한일 강점 100주년을 반성하는 의미의 아시아 인권과 평화 발표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문화 정립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확인하는 내용의 세션이 준비, 눈길을 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